

중세중국소설 《량산백과 축영대》의 주요예술적형상수법

오 명 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의 형상수법은 오랜 세월에 걸쳐 보편화된 형상창조의 효과적인 방법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320페이지)

중세중국소설 《량산백과 축영대》의 기초로 되고있는 량축전설은 세계의 우수한 문학유산의 하나로서 중세중국인민들의 지혜와 재능에 의하여 창조되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다듬어지고 발전풍부화되어온 우수한 예술적수법들을 담고있다.

작가는 량축전설에서 창조된 형상수법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면서도 그것들을 개작보충하여 이 소설의 예술적형상화수준을 보장하는데 리용하였다.

소설에 쓰인 주요예술적형상수법으로는 우선 련속적인 극적정황조성의 수법을 들수 있다.

량축전설에 기초하고있는 련속적인 극적정황조성의 형상수법은 그 독특성으로 하여 이 소설의 예술적효과성과 감화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소설 《량산백과 축영대》에서 첫 극적인 정황은 축영대가 남복을 하고 공부하러 집을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묘사된다.

축영대는 자기의 결심을 반대하는 아버지나 형님들과의 첫 충돌에 부닥치나 재치있고 진지한 노력으로 집을 떠나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소설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있는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축영대가 놀라운 결심과 행동을 하게 된 경위를 밝혀주고있다.

축영대의 아버지 축공원은 평소에는 자식들을 엄하게 다스렸지만 축씨가문의 아홉번째 자식이며 유일한 딸인 그에게만은 제멋대로 놀도록 내버려두었으며 축부인도 딸에만은 끔찍이 귀여워하면서 그의 온갖 어리광을 다 받아주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오빠들을 따라 서당에 다니면서 4서 5경을 읽었으므로 글도 쓰고 시도 읊을줄 알았다. 이런 생활경위로 하여 그는 남자들처럼 용감하고 대바른 성품을 지닌 처녀로 자라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고싶은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누가 가로막는다 해도 절대로 그만두지 않았으며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은 그 누가 아무리 강박하여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제멋대로 놀기는 하였지마는 경솔한 행동은 한적이 없었고 언제나 정직하였으며 부당한 요구에는 절대로 수그러들지 않는 품성을 지니고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도 남자들과 똑같은 배움의 권리를 누리며 학문의 높은 경지에 오르려는 열망을 품고있었으며 그런데로부터 향주로 공부하러 가는 젊은 남자서생들을 몹시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그곳에 가서 공부하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소설에서 다음의 극적정황은 량산백과 축영대가 공부하러 향주로 가던 도중에 초교진에서 만나서 오랜 친구와 같이 가까워지고 의형제를 맺는 장면에서 묘사된다.

여기에서는 남자로 변장한 축영대가 자기의 정체를 숨기자면 될수록 남자들을 멀리하면서 조심하여야 하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되게 행동하는것으로 극적정황을 조성한다. 이 장면은 열렬한 향학열을 가지고있는 두 젊은이가 아름다운 자연환경속

에서 깊이 친숙해지고 가식없는 마음으로 미래를 끝없이 동경하는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것으로 제시되었지만 독자들은 이 장면에서 축영대의 앞으로의 일을 걱정하고 우려하며 이제 어떤 흥미있는 정황들과 사건들이 벌어지겠는가 하는 호기심과 기대를 가지게 된다.

소설에 그려진 또 하나의 극적정황은 18리 바래움때 량산백이 축영대의 암시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장면이다.

축영대는 자기와 량산백을 물고기, 원앙새, 견우직녀 등에 비기면서 자기의 애정을 로골적으로 암시하나 량산백은 알아차리기는 커녕 오히려 축영대를 보고 정신이 나갔다고 나무라기만 한다. 여기까지의 두 주인공의 관계, 그들의 심정과 조성된 정황으로 보아 그들의 혼약이 이루어지리라고 독자들은 기대하였으나 뜻밖에도 축영대의 조심성과 량산백의 순박성으로 하여 일은 성사되지 못하게 된다.

여기까지 소설의 이야기줄거리는 희극적인 정황이나 사건, 사실들로 엮여져왔다고 볼 수 있으나 축영대가 집으로 돌아오면서부터 비극적인 장면들의 연속으로 이어진다.

축영대가 어머니가 앓으니 돌아오라는 편지에 속히워 집에 돌아왔을 때 부닥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은 마문재와의 혼약문제가 제기된것과 마태수에게 놀리우고 구매파의 감언리설에 넘어간 축공원이 딸과 안해의 반대를 묵살하고 전횡을 부려 곧 이 약혼을 승낙한것이다. 축영대와의 약속대로 그의 아홉번째 녀동생과 혼약을 맺으려 촉가장에 온 량산백은 축영대가 녀자이며 그 자신이 아홉번째 누이동생이라는것과 그가 이미 마문재와 혼약을 맺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사실에 접한다. 그후 량산백은 축영대의 굳은 절개를 알고있으면서도 아무런 적극적행동도 하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세상을 떠난다. 마씨집에 출가하지 않겠다고 아버지와 강하게 맞서던 축영대가 뜻밖에도 마문재와의 결혼에 동의하는척 하면서 세가지 요구조건을 제기한다.

소설에서 가장 큰 극적인 정황과 사건은 환상적으로 그려진 마감장면에서 벌어진다.

《비소리와 우뢰소리, 울음소리, 고향소리가 한데 어울려 어지럽게 들려왔다. 그때 갑자기 쿵—하고 둔중한 소리가 들리더니 량산백의 묘지가 썩 갈라졌다. 축영대는 그 광경을 보고 놀라움과 기쁨을 억제할수 없어 웨쳤다. <량산백오빠가 정말 날 맞이하는군요. 오빠, 오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곧 갈게요.> 세찬 바람때문에 좀처럼 몸을 지탱하기 어려웠지만 축영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무덤속으로 뛰어들었다. 바로 그 찰나에 또 쿵—소리가 나면서 무덤이 닫겨버렸다. 드디어 축영대의 꿈은 실현되었다. ...바로 그때 폭우도 멎고 우뢰와 번개도 그쳤다. 그 순간 먹장구름이 가셔지고 하늘이 열리더니 찬란한 해빛이 쏟아져내렸다. 아롱다롱한 무지개가 파아란 하늘에 비끼는것과 동시에 갑자기 두마리의 아름다운 꽃나비가 무덤우에 나타나 팔랑팔랑 춤을 추며 날아예기 시작하였다. 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 모습인가! ...》

소설에 쓰인 주요예술적형상수법으로는 다음으로 과장의 수법을 들수 있다.

축영대가 남복차림을 하고 집을 떠나 향주에 가서 3년간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이야기줄거리는 과장의 수법으로 제시되었다.

16~19살나는 처녀가 변장하는 방법으로 3년동안이나 정체를 감추고 남자들속에서 생활한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영대가 남복차림으로 집을 떠나 3년간 남자서생으로 공부한 사실은 첫 량축전설에서부터 제시되어있으며 그후의 전설들에서 일관하게 제시되면서 다듬어지고 강화되어왔다.

이러한 묘사방법을 리용하게 된 이유는 이 사실이 남존녀비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던 당시 인민들과 청년들의 소원을 반영하고있고 축영대의 기지와 지혜, 대담성과 순결성, 량산백의 순박성을 보여주려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결국 소설에 쓰여진 과장의 수법은 인물들의 성격적특질이나 생활의 본질자체를 과장하거나 외곡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뚜렷하고 인상깊게 보여줌으로써 사실주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소설에 쓰인 주요예술적형상수법으로는 다음으로 비유법을 들수 있다.

작가는 직유, 은유를 비롯한 비유법을 인물이나 사건, 사상감정을 보다 생동하고 뚜렷하게 보여주고 표현하는데 적극 활용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성을 높이고있다.

비유법은 축영대가 항주로 글공부하러 갈 때 강남의 대지를 지나면서 옽은 즉흥시에서 찾아볼수 있다.

아름다운 봉황새 구름속으로 사라지니
 람색옷에 날씬한 허리 감싸일줄 누가 알았으랴
 글재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릴제
 나를 반소와 사도온에 비기리라

시의 첫행은 울타리안에만 갇혀있던 자기가 대지를 활보하며 항주로 가는 모습을 조롱속에 갇혀있던 봉황새가 창공을 날아예는것으로, 두번째 행은 강남의 아름다운 자연경치가 자기를 반겨준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있다. 그리고 시의 셋째, 넷째 행에서는 축영대가 자기를 한나라때의 녀성력사가 반소에, 동진시기의 녀류시인 사도온에 비기면서 훌륭한 녀성이 되려는 결심을 표현하였다.

축영대와 량산백이 항주학당에서 시구맞추기를 배울 때 지은 시에서도 비유의 수법이 재치있게 활용되어있다.

선생인 주세장이 《파란 잎과 붉은 꽃은 나비들이 찾아들게 할수 있고》라고 문제를 제시하자 량산백은 《금화살과 은화살은 원앙새를 잡을수 있다네》라고 대구표현으로 대답하였다. 이때 축영대는 《원앙새를 잡지 못하네》로 고쳐야 할것 같다고 제기한다. 축영대의 시구는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으로는 꿀벌나비를 홀릴수 있어도 돈과 재물로는 진정한 사랑을 얻을수 없다는것을 은유의 수법으로 표현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중국인민들속에서 널리 쓰이는 성구와 속담, 풍속 같은것들이 비유에 적중하게 활용되고있다.

량산백은 헤어지기 몹시 섭섭해하는 축영대에게 속담에도 《끝나지 않는 주연이 없고 달도 그믐되는 때가 있다》는 말이 있다고 위로해주며 축영대는 량산백에게 보낸 편지에서 옛글에 《푸른 산만 있으면 뽕나무는 걱정없다》고 한것처럼 오빠가 있으니 자기는 두려운것이 없다고 표현하였다.

작가는 돈벌이를 위해서는 량심과 도덕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구매파가 《천성적인 말재주》를 타고났다고 하면서 그의 허끝에서 수많은 청춘남녀들의 행복이 묻혀버렸고 또 수많은 비극적인 결혼이 생겨났다는데 대하여 그리고 마태수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이고 맞서는 사람에게는 《염라대왕》이라고 구매파가 떠들어대면서 축공원에게 은근히 압력을 가한데 대하여 비유적으로 비판하였다.

축영대가 량산백의 바래움을 받던 날 자기들을 《마주보며 사는 물고기》, 《한쌍의 원

양새》, 《금동옥녀》, 《한쌍의 계사니》, 《견우직녀》, 《합장되는 부부》 등에 비긴것도 비유법이 널리 쓰인 소설의 특성을 말해준다.

소설에 쓰인 주요예술적형상수법으로는 다음으로 환상의 수법을 들수 있다.

환상의 수법은 이 소설의 마감에 한번밖에 쓰이지 않았지만 진보적사상을 표현하는 데서 가장 큰 몫을 맡고있다.

량산백의 묘지가 갈라지고 축영대가 그속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뛰어드는 순간에 주인공들의 성격발전은 절정에 이른다.

축영대는 이미 량산백의 묘소에 찾아가 제를 지내겠다고 제기할 때 그와 생사를 같이할 각오를 가지고 무덤에 뛰어들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낳는 《이 세상》에 죽음으로 맞선다. 이 장면에서 량산백에 대한 축영대의 참된 사랑의 정신과 현실에 대한 그의 《반향》정신은 최대로 표현되며 또한 이 순간에 축영대와 같은 지혜롭고 총명하며 주견있는 녀성도 가혹한 봉건의 구속에서 벗어날수 없고 희생물로 되고만다는 사상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그리고 무덤이 닫긴 후 그우에 두마리의 고운 나비가 나타나 자유롭게 춤추며 날아예다가 쌍을 지어 하늘가 멀리로 날아갔다는 마감장면을 통하여 당시의 중국인민들과 청년들이 봉건적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갈수 있는 사회에 대한 절절한 념원과 동경심을 량만주의적색채로 보여주고있다.

소설에 쓰인 주요예술적형상수법으로는 다음으로 풍경묘사를 들수 있다.

소설의 대표적인 풍경묘사로는 축영대가 항주로 공부하러 갈 때 접하게 된 강남의 대지에 대한 풍경묘사이다.

축영대가 중중첩첩이 솟아있는 푸른 산들, 런던이 뻗어간 밭이랑들, 펼쳐진 무성한 수림들, 농사일에 여념이 없는 농민들과 목동들, 행인들, 농가들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등을 처음으로 목격하면서 새가 조롱에서 벗어난것 같은 즐거움을 한껏 느끼는 장면은 새 희망을 가슴에 품고 환희에 한껏 들떠있는 그의 심리를 깊이있게 드러내고있다.

량산백과 축영대가 전당강기슭에 함께 걸어서 도착했을 때 석양에 물든 항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그들앞에 펼쳐진다. 이 자연풍경에 대한 생동한 묘사는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오고싶어하던 항주땅에 들어선 그들의 량만적인 심정을 더 잘 드러낼수 있게 해준다.

량축전설에 기초하고있는 소설 《량산백과 축영대》는 중세중국인민들의 반봉건적지향과 청춘남녀들의 자유로운 사랑에 대한 갈망을 다양한 예술적수법으로 생동하게 그린것으로 하여 중국인민들과 세계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